

12/5(월) 시편(4 권) 묵상 8

시편 96:1-1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 시는 구조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3절은 주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찬양; 4-6절은 주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찬양; 7-10절은 만방의 족속들이 주님께 경배하라; 11-13절은 온 세상이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시편 96편의 청중들로 하여금 '찬양하라는 부름'이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1-3절; 7-10상; 11-12절). 이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찬양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참 신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으로다."**). 시인은 하나님과 모든 신을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참 신이지만 모든 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둘째로 주의 구원의 능력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기이한 행적 때문입니다(2-3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에서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고백합니다(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셋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생애를 전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나보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적에 미술을 할 때 미술을 잘하는 어머니와 그림을 그리게 되면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도 어머니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고쳐서 좋은 작품으로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과 나의 삶이 결국에는 선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시 121:7-8,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넷째로 하나님의 의와 진실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복적인 심판이 아니고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원수인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과 온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고 주님은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실 것이지만 특히 주의 뜻과 반대되고 거슬러서 살아간 이들은 더욱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의인들이 받는 심판은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로 인한 보상을 의미합니다(단 12:2-3,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분명히 성경은 어떤 이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어떤 이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와 반대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두 공정하게 실현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두다 보시고 들으시며 아시기 때문에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 의인의 고통 그리고 원수에 대한 보복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다 갚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히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외교, 특히 북한 문제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한국의 교회들과 신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뉴헤이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베트남 우석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